

송도경제자유지구의 이상과 현실

— 세계화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 준 우*

요약 : 송도경제자유지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 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약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주요어 : 송도, 세계화, 한국 국가, 도시화, 경제자유지구

오는 2007년 영종도와 '제2연륙교'로 연결될 송도신도시는 인천 앞바다인 연수구 동춘동 535만평을 매립해 만들어지는 대단지다(지도 1 참조). 인천 3차 동시 분양을 통해 분양될 송도신도시 아파트들은 매립이 끝난 1단계 부지 176만평 내에 들어선다(사진 1 참조). 송도신도시는 '경제특구'라는 호재 외에도 특히 인천 시내로의 접근이 쉬워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다(조선일보, 2002년 12월 5일). 3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인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73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신도시에서 3,844가구를 공급하는 풍림산업과 금호산업은 30평형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평당가격을 580만-600만원에 책정했지만, 40-60평형대는 650

만-73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금까지 6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고 인근 연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가 현재 평균 5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세계일보, 2002년 12월 24일).

2008년 이전까지 인천 송도신도시에 미국 유명사립학교가 설립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송도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는 메사추세츠에 있는 밀턴 아카데미(Milton Academy), 코네티컷에 있는 태프트 스쿨(Taft School) 등 6개교 가운데 일부 학교가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파이낸셜 뉴스, 2004년 4월 30일). 이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5-8대 1에 불과하고 미국 대학수학능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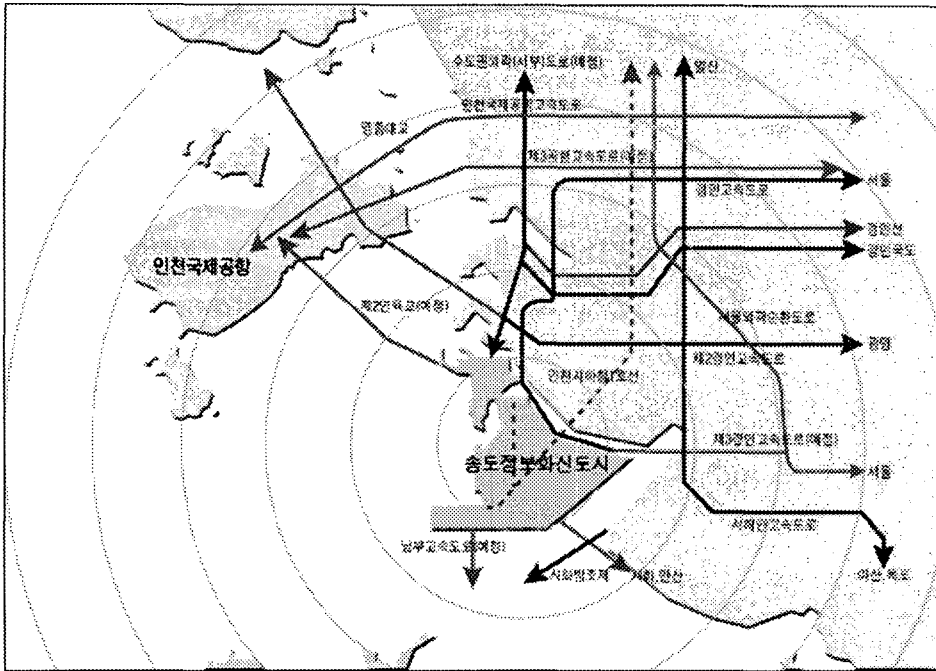


그림 1. 송도신도시 주변교통망

출처 : 연수구청, 2004, http://www.yeonsu.go.kr/korea/econo/songdo_index.html 7월 27일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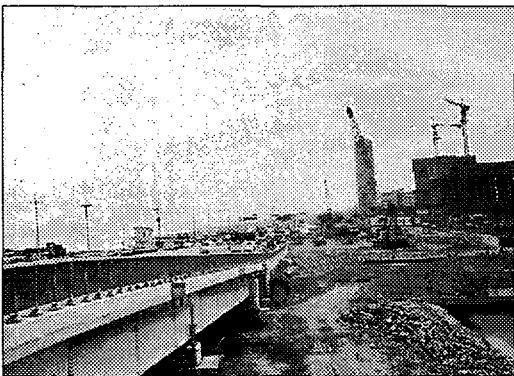


사진 1. 송도신도시 건설현장

출처 : 김준우 촬영사진 2004년 6월

력시험(SAT) 점수가 평균 1300점 안팎으로 전국 평균 1026점을 크게 웃도는 명문이다(세계일보, 2004년 4월 30일). 외국 대학병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5월

12일 미국의 유명 병원 등과 송도신도시 병원설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2004년 5월 13일). 대상병원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Johns Hopkins Hospital), 하버드 대학병원(Harvard Medical School) 등이다(Korea Times, 2003 October 15th).

여러가지 대규모 투자도 예정되어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의 투자자문회사인 '아시아 벤처 파트너(AVP)'사가 송도경제자유구역 5,7 공구 전체 198만평에 정보기술중심 연구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의해 왔다(문화일보, 2004년 5월 6일). 지식정보단지는 80만평규모 3,445억원을 들여서 2005년 완공예정이며, 바이오단지 역시 추진될 계획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3). 1,3 공구(167만평)에는 미국 게일(Gale)사와 국

내 포스코 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27억 달러를 투입, 2004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국제무역센터(60층), 특급호텔 4동, 백화점 및 쇼핑몰, 골프장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한국일보, 2004년 4월 26일). 산업단지 입주자 등을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9만 812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25만 2500여명이 살수 있는 규모다(서울신문,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는 2008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며 총 길이 21.78km 왕복 6차선으로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원에 이른다(한국일보, 2004년 3월 23일). 송도신도시 남측에는 첨단설비를 갖춘 항만과 물류센터 등 배후부지 1백60만평을 개발하는 총 사업비 약 2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송도신항만 사업이 2006년 착공, 2009년 준공될 예정이다(경향신문, 2004년 7월 16일). 2004년 10월 8,400평 규모의 컨벤션 센터도 착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은 송도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 연간 30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며 국내총생산도 1%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일보, 2004년 3월 1일).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2002년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인한다. 이 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로앤비, 2004)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기술수반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세 법인세를 7년간 면제받고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취득, 등록, 재산, 종토세는 5년간 면제이다. 3년간은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부가세, 특소세를 면제받는다(더 자세한 내용은 이창재, 2002 93페이지를 참조할 것). 시·도지사는 입주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앤비, 2004).

필자는 이 논문에서 송도신도시가 한국도시화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화와 국가의 관계가 송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전개될 것이다. 첫째, 세계화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가 언급된다. 둘째, 송도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보여진 세계화의 추구가 한국 국가의 소멸 내지 약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송도를 통해 보았을 때 세계화와 국가성격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가져올 것인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송도신도시가 가지는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1. 세계화와 도시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세계의 경제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부터 세계화(globalization)로 이행하였다. 국제화된 경제에서는 여러 국가의 개인과 기업이 민족국가의 강한 통제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이러한 무역이 개별 국가들의 느슨한 통제하에 독과점화된 세계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Knox, 1995). 이러한 형태의 세계경제의 변화와 도시화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나, 여기서는 국가의 성격과 공간경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첫번째는 세계화가 국가의 힘을 약화 내지 소멸시킨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견재하거나 오히려 그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 잘 정리된 문헌으로는 Held & McGrew, 2002를 참조할 것).

첫번째 논지에 가장 직설적으로 가까운 연구자는 Mike Douglass(2000)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도시와 지역들은 중앙정부들을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각기 외국투자의 대상지로서 입지강화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시장의 초국적 기업에 의한 흡수는 민족국가의 관세 및 국경통제를 통한 전통적 정책도구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을 이룩해온 발전국가들 역시 아래의 세가지 힘에 의해서 이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1) 분권화되고 민주적인 정치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대두, (2)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의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 압력, (3)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세계경제의 변화이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로 인해 각광받는 대도시권역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세계적 도시권역(global city-region)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 도쿄 등은, 단지 높은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공공정책에 대한 강화된 발언권과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Douglass 식의 주장은 사실 서구 학문세계를 주도해온 근대화론이나 도시생태학에서의 주장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Keyfitz (1965)는 산업화이전 사회에서는 도시가 주변 지역을 일반적으로 힘과 조직력으로 지배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한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McKenzie (1927: 32)는 통신교통의 발달로 인해 공간적 지배(spatial dominance)는 점점 더 정치가 아닌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통신수단이 발전되고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세계는 거미망 형태에 기초해서 조직된다. 지역적이건 국가적이건 간에 모든 경계는 점차 의미를 상실한다. 테두리가 아닌 경로가 더욱 더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다. 현대경쟁은 문화나 정치영역이 아닌 지역들과 중심지들간이다. 정치적 경계가 계속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의 현대적 의미는 군대의 이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이동에 대한 것이다.¹⁾

세계화 관련 도시 이론으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도시론 역시 국가의 약화를 주장한다. Sassen(1991)에 의하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런던, 뉴욕, 도쿄 등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들은 경제기반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도시의 공간조직과 사회구조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세계도시로서 금융, 법률, 회계, 방송 등의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산을 통제하는 초국적기업의 근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계도시에 대한 논의는 John Friedman(1986; 1995)과 Saskia Sassen (1991; 1995; 1997; 1999) 두 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세계도시론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Friedman과 Sassen의 논의를 중심으로 Hill & Kim(2000)이 정리한 세계도시론의 주요 가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첫 번째로,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증추 기능은 몇 개의 소수의 도시로 집중되게 된다(Sassen, 1991: 5). 세계적 기업들은 국제적인 하청, 합작, 그리고 사업연대를 통해서 생산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의 지리적인 분산은 더욱 더 강화된 증추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공장, 사무실,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활동이 필요하다(Sassen, 1995: 263). 세계도시는 기업의 이러한 세계적 활동을 통제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성화한다.

두 번째로, 세계적 통제기능(global control function)이 세계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이러한 세계적 통제기능은 기업본사, 국제금융, 세계적 교통 및 통신, 고차원적 기업서비스(high level business services), 미디어와 문화를 통한 이념적 침투(ideological penetration and control via media and culture) 등으로 볼 수 있다(Friedmann, 1986: 322). 이 중에서 국제금융과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세계적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금융 및 생산자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서로 가까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계도시와 같은 주요한 도시에 밀집한다. 이렇게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타기업에 일감을 제공하거나 공동생산이 가능해진다(Sassen, 1995: 68). 이러한 입점성은 시장에 속도를 붙여준다. 세계적 무역 및 제조업 기업들은 본사를 대도시밖에 입지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 및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은 세계도시가 아직도 필요한 것이다. 즉, 세계도시의 의미는 개개의 기업이나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터(market-place)와 생산장소(production site)로서 파악되어야 한다(Sassen, 1991: 7).

사유화(privatization)와 탈규제(deregulation)는 세계도시의 주요특성이다. Sassen(1997: 183)은 “법적인 분야의 혁신과 사유화가 뉴욕과 런던과 같은 도시가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였다²⁾”고 주장한다. King(1990: 87)에 따르면 세계체제에서 런던의 주요 기능은 금융센터로서이며 이러한 역할은 증권거래의 탈규제로 인하여 더욱 두드러졌다고 한다.

세 번째로, 세계도시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금융과 생산자서비스가 경제와 사회형태를 좌우한다. 세계적통제는 제조업에서의 대규모 실업,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외국인민자의 증가, 극심한 부의 집중, 사회적인 양극화, 도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사회적 비용과 연결된다(Friedmann, 1986: 324-326). 제조업은 국제금융관련 부동산 투기와 “중산층 이상이 낙후된 도심에 재진입하는 현상(gentrification)” 때문에 대도시로부터 밀려나게 된다. 세계도시에서 제조업은 양적인 쇠락 뿐 아니라 그 질의 저하도 겪게 된다. 세계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악한 작업장(sweatshop)”과 “가정하청(industrial homework)”이 그 예이다. 이민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임금하락 압력과 노조가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의 탈산업화가 이러한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도시는 한편으로는 법률, 금융, 보험, 기업서비스, 회계, 광고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계층을 양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급 저임금의 건물관리, 청소, 사무, 판매, 가사, 호텔, 식당 등의 직종에 있어 거대한 수요를 창출한다(King, 1990: 28).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는 주거지역에서도 나타나며, 고소득자들의 주거지역은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을 차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도시정치에서의 고소득층의 입김은 이 계층이 부담하는 낮은 세율로 연결되어서 도시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Friedmann, 1986: 326).

네 번째로, 국제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계도시간 위계질서(hierarchy)가 성립한다. 이 위계질서의 제일 위에는 뉴욕, 런던, 도쿄가 차지하고 있다. 위계질서내에서 순위는 도시가 세계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Friedmann, 1995: 26). 세계도시의 상위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며, 도시들은 이 위계질서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곤 한다.

다섯 번째로, 초국가 자본이 공급이 세계도시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시민적인(cosmopolitan) 문화와 소비주의적인(consumeristic)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 자본축적체제가 부드럽게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지역적인 관심을 가진 토박이 공급과 충돌하기도 한다(Friedmann, 1995: 26).

여섯 번째로, 세계도시들은 서로간에 연합하여 초국적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도시체제를 만든다. 세계도시간은 더욱 더 서로를 닮아가고, 이러한 세계도시들은 같은 국가의 다른 도시들과도 갈수록 더욱 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국가성장과 그 국가안의 세계도시 발전간의 연관성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Sassen(1991: 13)은 세계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조건들은 미국, 영국, 일본의 다른 지역 쇠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King(1990: 145)은 런던연구에서 자신이 받은 가장 강한 인상은 세계도시가 소속국가로부터 점차 “분리화되고(unhooked)”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약화라는 입장과는 달리, 두번째 입장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힘은 견제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Dicken(2003: 122-163)은 세계경제 지도를 그리는데 있어서 국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국가형태는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생산체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배태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의 자본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자본주의(neo-liberal market capitalism),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social-market capitalism),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발전주의 자본주의(developmental capitalism)를 구분한다. 이들 다른 자본주의 체제에서 각 국가는 고유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력을 가진다. 또 그는 Michael Porter(1990: 10)를 인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치열해지는 세계적 경쟁에서 중요한 기능(skills)과 기술은 국가에 의해서 더욱더 좌우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Hill & Kim(2000)은 Diken과 마찬가지로 배태된 각 국가의 고유성을 주장하며 세계도시론의 세계보편적 적용을 비판한다. 그들은 McKinnon & Ohno(1997)와 Rosen & Reagan(1997)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심지어는 뉴욕의 금융과 생산자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강점은 지불, 계산, 가치보전으로서의 미국 달러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 달러화는 미연방정부의 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Wall Street의 투자은행 뿐 아니라 뉴욕 도시의 개발계획가들까지도 뉴욕의 금융 및 생산자서비스 회사가 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워싱턴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도시론의 원형인 뉴

육에서도 국가의 중요성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도쿄와 서울의 경우 국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 도시들의 세계도시화는 정부관료가 후발근대화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산업정책과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계도시 가설에 나오는 다양한 현상들은 이 도시들에서 그대로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도시론이 세계 자본주의의 미국식 수렴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계경제 역시 Dicken의 주장과 같이 단일한 자본주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들의 인식에 연유한다.

2. 세계화와 국가 : 송도의 경우

필자는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세계화의 상징인 송도가 국가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송도경제자유지구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계획하였고 현재 실행중인 사업이다. 송도신도시 개발계획은 인천의 기존 시가지내 개발가능지 부족으로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79년에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택지의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로 출발하였다(옥동석, 2002: 127).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1984년 8월 13일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송도해상도시를 건설, 적정인구를 수용토록 계획된 바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89년 매립허가를 신청 90년 535만평의 매립면허를 승인받았다(김상진, 1991). 바다매립은 1994년 7월에 시작됐다(한겨레, 2003년 12월 9일).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때문이었다.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시작된 것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3). 김대중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2002년 1월 15일). 이에 따라 2002년 4월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3). 이 계획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하는 동시에 세계 우수 기업·금융사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송도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되기 위해 매립 및 기반 시설 확충되고 다국적기업 국제업무의 거점지 및 고도지식 기반사업 집적단지화로 방향이 잡혔다(국민일보, 2002년 4월 4일).

현재 사업의 추진 역시 중앙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로앤비, 2004).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국기업의 참여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좋은 예가 2002년 3월 16조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공구 일대에 비즈니스센터와 부대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게일(Gale)사의 경우이다. 회사의 회장이자 이사인 스탠 게일(Stan Gale)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아래와 같이 얘기한다(Wood, 2004) :

우리는 한국 중앙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 한국의 중앙정부는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며, 우리가 한국의 우수한 회사인 포스코건설과 팀을 이루게 하였다 ... 우리는 한국정부로부터 토지를 되사주겠다는 보장과 모든 종류의 보장들을 받을 수 있었다³⁾.

두번째로, 송도경제자유지구의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한다. 내용은 주체와는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중앙 내지 지방 정부가 사업을 계획 추진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60년대 이후 뉴욕의 도시개발은 도시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맨해튼에 기반을 둔 기업가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 맨해튼의 쇠퇴로 투자의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록펠러와 체이스 맨해튼은행은 새로운 본사건설과 건설금융을 통하여 대규모 사무실 공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DLMA(Downtown Lower Manhattan Association)이라는 조직을 창설하여 거대 기업들의 개발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 재개발, 로워 맨해튼(Lower Manhattan) 고

속도로, 2번가 지하철, 세계무역센터 건설 등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에 포함될 관련 연구들과 정책대안을 후원하였다. 이후 이 계획들은 1969년 뉴욕시 종합계획에 공식 통합되어 현재의 맨해튼으로 향해 출달을 칠 수 있는 세계도시개발 기반이 되었다(Fainstein & Fainstein, 1989 : 한국공간환경학회, 1996 : 77에서 재인용).

시장의 송도경제자유지구의 내용에 대한 반응은 시장관련 해당 당사자들에게도 싸늘했다. 엘라즈와니 한국P&G 사장은 “한국이 동북아 허브가 되려면 일부 지역만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보다 각종 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해 한국 전체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2년 7월 13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몇몇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분포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 2004년 2월 27일).

경제특구에 대해 긍정적인 외국인 투자 관련인도 현재 송도경제자유지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경우가 있다. 겐터 슈스터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외국기업 투자를 지정해 외국기업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상당수 다국적기업 관계자들이 2002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라며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한국 정부가 아직 좀 더 피부에 와닿고 구체적인 정책을 안 내놓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매일경제, 2002년 12월 31일).

연구	인천의 기존 이미지	인천의 향후 (공적) 이미지
문화정책 연구소, 해반 문화사랑회 (2002)	- 혼잡, 지저분, 무질서, 불편 - 침체되고, 우중충함, 구시대적	- 해양환경도시 - 문화도시 - 국제물류도시 - 첨단도시
이윤희(2002)	- 혼잡, 더럽다, 시끄럽다, 우중충	
해반문화 사랑회(1999)	- 갯벌, 갈매기, 배, 항구, 섬 - 잔물, 잔돌이, 촌놈, 깎쟁이 - 혼란스럽고 삭막한 도시 - 그 속에 살고 있는 메마르고 이기적인 모습	- 미디어 벨리, 송도신도시 - 영종 국제공항

송도 경제자유지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기업의 반응은 물론 호의적일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태스크포스팀이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실행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인천 송도지역을 IT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메카로 집중육성하는 것을 ‘건설방안’의 핵심전략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지만, 대기업들은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특구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제일경제, 2003년 1월 28일). 이환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주어야 다국적 기업들도 확신을 갖고 들어올텐데 국내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게 돼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한국경제신문, 2004년 7월 26일).

송도경제자유지구의 사업내용이 국가의 논리를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의 획득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chimura는 도쿄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자본축적의 논리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도쿄 시정부가 도시재개발을 주장하면서 세계도시로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세우는 것을 들 수 있는 것이다(Machimura, 1998). 송도경제자유구역 역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라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상징 획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송도에서는 민족주의와 세계화가 가지는 세계 시민주의(cosmopolitanism)라는 의미의 병존이 있다. Machimura가 주장한 도쿄의 세계도시화에 있어 서구화라는 상징과 도쿄의 전통적 의미에 대한 관심의 강화(예를 들어 1993년 개관한 Edo-Tokyo Museum 건설에서 보여지듯이 도쿄 시정부에 의한 포스트모던적인 전통의 창조 <invention of tradition>)의 병존과는 구체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상징의 병존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송도에서 상징적 의미의 획득은 도쿄에서와 같이 정치엘리트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아래의 인천지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천에

대한 이미지, 정체성 분석(김번욱 윤면상, 2003: 39)은 송도와 관련한 상징적 의미 획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세번째로, 송도에서 국가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요소는 세계화를 위한 개방의 속도, 폭, 그리고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송도에서 두드러진 교육, 의료 시장의 개방은 현재 WTO 체제내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등 144개 WTO 회원국들은 양자협상과 함께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분야별 서비스 시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이전에 양허 내용을 최종 확정짓게 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적 서비스와 광고 특급배달 시청각 에너지 환경 분야의 개방과 건설 유통 금융 통신 분야의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법률 교육 시청각 건설 유통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으며 EU는 법률 방송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의 개방을 원했으며, 일본은 통신지분 제한 완화와 교육 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헤럴드 경제, 2002년 7월 27일).

송도신도시 건설과 연결하여 중앙정부는 어떠한 형태로 개방이 되는지를 결정할 주도권을 재정경제부가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들이 또 어떠한 시기에 허용될 것인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Yan(2002)이 중국 문화부문의 세계화에서 어떻게 국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관리된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Yan은 공산당과 정부가 세계화 과정의 많은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공격(예를 들어 1980년대의 정신적 오염 <spiritual pollution>과 1990년대의 부르조아 자유화 <bourgeois liberalization>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공격을 국가적인 선전으로서 활용하였다. 방송에 있어서도 외관적으로 보이는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은 실질적으로 국가통제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로듀서나 감독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베이징 맥도날드의 51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화적인 통제유지의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3. 세계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

필자는 세계화가 국가의 약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송도는 세계화가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독자들이 이전의 국토개발계획의 내용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제 4차(2000-2020) 국토종합계획은 이전의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전 국토개발 계획은 작은 중소도시를 육성시키는 성장거점식 방식(Growth-pole approach)

이거나 서울을 대치할 중심지를 지방에 육성한다는 중심지 육성 식의 방식을 취하였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구라는 측면이나 제조업생산, 서비스업 등 거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기존 계획들에 비해 혁명적으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은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대한민국 정부, 2000: 26), 국제기능 수행을 위한 수도권의 물적 기반 및 전문적 서비스 산업 육성과 서울의 국제금융, 교역, 업무 및 문화교류 기능을 육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거점화하는 세계도시로의 육성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영종도, 인천은 국제물류, 수송, 정보 및 첨단기술 수용의 거점역할 수행이라는 역할이 배당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도시, 송도미디어밸리 조성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계획수립의 배경이 되는 여건변화로서는 “세계경제의 자유화(8쪽)”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WTO체제하에서는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성장 예상, 자유롭고 규제가 없으며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찾아 기업이 입지하는 국경없는 산업입지추세 전개, 국가경쟁력과 국부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증대(8쪽)”을 들고 있다.

둘째, 이러한 세계화는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송도는 국가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라는 새로운 과제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이창재, 2002: 국문요약)는 이러한 면

을 가장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법은 개방적 문화나 사회안정을 위한 협의체제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차원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 표명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제 자유구역은 적극적 개방정책과 같은 경제전반적 변화에 대한 정부부처간 합의도출이 어렵고 강력한 수도권 억제정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만이라도 비즈니스 거점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차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양 극단을 달리고 있다. 김기환(2002)은 경제특구를 외국인 수용지(ghetto)로 묘사하면서 특구 방식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고 있다. 경제특구 방식의 정책은 그 특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지 않고 추진된 정책이며, 행정부조리 및 부패(특구내 거래의 위장, 특구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특구의 불법 매매 등등)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단위간 경쟁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전 국토의 전면적인 개방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많은 시민단체들은 특구식의 부분개방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92개 시민, 사회, 노동 단체들은 2002년 10월 15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신문, 2002년 11월 19일). 실제로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문외에도 몇가지 구체적인 노동유연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로앤비, 2004).

교육 분야에서의 반발도 거세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2004년 3월 29일 “외국인 학교이면서도 내국인 입학 허용하기 때문에 경제특구가 아니라 내국인 학생이 복적대는 ‘교육특구’가 될 것”이라며 “계층간 위화감, 사교육비 증가, 교육여건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겨레, 2004년 4월 30일). 법안에는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로앤비, 2004).

필자가 서론에서 글을 시작하면서 송도 경제자유지구의 교육과 의료 부문을 소개한 이유는, 이 사회문제들이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실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개척지는 결국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어떠한 지형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송도경제자유지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이는 세계화가 공간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학설에는 반대되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사례연구일 뿐이며 일반화되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약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 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의 대두는 향후 한국국가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고 필자는 전망한다. 이 부분에서 세계화와 관련된 이론을 전개한 학자들의 시각들이 다시 의미를 지니게 된다. Douglass(2000)식으로 해석하자면 송도는 시민사회의 대두와 발전국가의 쇠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Dicken(2003)식 논리를 확장하자면 송도는 한국발전국가의 자체 생명력 연장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Chang(1999)이 주장한 발전국가가 수

행해야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화를 위한 조정” “목표의 제시” “갈등조정” 등이다. Chang은 또한 발전국가에 있어서도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국가기구의 착복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송도신도시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상당히 힘들며 따라서 국가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Chang의 개념인 조정, 목표제시, 부패방지의 필요성 등의 문제에서 송도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필자에게 있어서 송도사업의 치명적 약점은 사업자체의 시작이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보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경험적인 연구가 있어야만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송도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투기가능성 정도가 국민 일부에게 이해된 송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무지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한다.

주

- 1) As the agencies of communication improve and as the impediments to movement are overcome, the world becomes organized on the pattern of a spiders web · All the old boundaries, both local and national, are gradually losing their significance; routes, rather rims, are becoming the subject of stressed attention. Modern competition is between regions and centers rather than cultural and political areas. While political boundaries continue to receive much attention, nevertheless their

modern significance is with reference to the movements of commodities and people rather than the movements of armies.

- 2) “privatization and innovation in legal practice make cities like New York and London key sites for the governance of global economic processes.”
- 3) We were invited in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views this as a national project, and they teamed us with Korea's leading corporation,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we were able to get government buy-back guarantees of the land and all kinds of insurance.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주요내용,” 4월 4일.
- 국민일보, 2004, “송도신도시 개발 ‘힘’ 받았다,” 3월 1일.
- 김기환, 2002, “경제특구의 문제점과 전면개방의 필요성,” 국토 9월, pp.32-40.
- 김상진, 1991, “인천해상신도시,” 국토와 건설 8(7), pp.63-81.
- 동아일보, 2004, “미 비자 인터넷 신청 추진,” 2월 27일.
- 대한민국 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로앤비(주), 20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nb.com/> 2004년 7월 26일 접근.
- 문화정책연구소, 해반문화사랑회, 2002,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매일경제, 2002, “외국기업사각 누진세율 왜 미국보다 더 높은가?,” 12월 31일.
- 경향신문, 2004, “현대건설 등 7개 업체 송도신항만

- 건설 참여,” 7월 16일.
- 문화일보, 2004, “송도특구에 대형IT연구단지-미AVP 사, 198만평 규모 제의,” 5월 6일.
- 서울신문, 2002, “대통령 연두회견/모두발언 일문일답,” 1월 15일.
- 서울신문, 2002,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92개 시민사회 단체 성명 11월 19일.
- 서울신문, 2003, “송도신도시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이륙,” 10월 31일.
- 세계일보, 2004, “미 사립교, 송도에 학교세운다,” 4월 30일.
- 세계일보, 2004,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최고가 평가 730만원선,” 12월 24일.
- 옥동석, 2002,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인천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7(1), pp.125-150
- 이윤희, 2002, “인천시민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창간호 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 연구원.
- 이창재, 2002,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3,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운영,” <http://www.incheon.go.kr/business/economy/download/workshop20031110.pdf> 7월 26일 접근.
- 파이낸셜 뉴스, 2004, “송도신도시에 미 명문사립학교 설립,” 4월 20일.
- 조선일보, 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이 되자,” 7월 13일.
- 조선일보, 2002, “택지개발지구를 가다: 영종지구 송도신도시,” 12월 5일.
- 제일경제, 2003, “인천경제특구 ‘동북아 R&D 허브’로 육성,” 1월 28일.
- 한겨레, 2003, “이슈와 쟁점/송도 신도시 추가 매립,” 12월 9일.
- 한겨레, 2004, “송도특구 ‘외국인 학교’ 파장,” 4월 30일.
- 한겨레, 2004, “송도에 외국대학병원 설립추진,” 5월 13일.
- 한국공간환경학회, 1996, 서울, Global City: 세계도시를 앞서가는 제안들.
- 한국경제신문, 2004, “경제자유구역 곁돌고 있다 ... 이해집단 반발 관련법 미비,” 7월 26일.
- 한국일보, 2004, “지금 이곳에선/암초많은 ‘송도신도시,’” 4월 26일.
- 한국일보, 2004, “인천공항-송도 제2연륙교 조기완공,” 3월 23일.
- 해반문화사랑회, 1999, “열려있는 땅,” 인천지역 엘리트 정주의식 조사보고서.
- 헤럴드 경제, 2002, “빛장여는 서비스 시장 기업 경쟁력 확보 ‘열쇠,’” 7월 27일.
- Chang, H. Joon., 1999, “The Economic Theory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Meredith, Woo-cumongs(ed.), *The Development Stat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182-199.
- Dicken, P., 2003, *Global Shift :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Map in the 21st Century* London: Sage.
- Douglass, M., 2000, “Globalization, Intercity Competition,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Pacific Asia: Toward Livable Cities in the 21st Century,” A Paper Presented at Southeast Asian Urban Futures Workshop held on July 21-2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Held, D. and McGrew, 2002,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Cambridge: Blackwell.
- Fainstein, S. S. & Fainstein, N., 1989, “New York City: The Manhattan Business District, 1945-1988,” in Squires, G. D.(ed), *Unequal Partnerships: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 Development in Postwar America* Rutgers University Press.
- Friedman, J., 1986,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 pp.69-84.
- Friedman, J., 1995, “Where We Stand: A Decade

- of World City Research,” in Knox, P. and Taylor, P.(eds.),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47.
- Hill, R. and Kim, J.W., 2000,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al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37(12), pp.2167-2195.
- Keyfitz, N., 1965, “Political-Economic Aspects of Urbaniza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 in Hanser, P. M. and Schnore, L. F.(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265-310.
- King, A., 1990, *Global Cities: Post-Imperialis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ndon*. London: Routledge.
- King, A., 1995, “Re-presenting World Cities: Cultural Theory/social Practice,” in Knox, P. L. and Taylor, P. J.(eds.),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5-231.
- Korea Times, 2003, “Incheon Free Zone To Be Foreigners’ Paradise,” October 15th.
- Machimura, T., 1998, “Symbolic Use of Globalization in Urban Politics in Tokyo,” pp.183-193.
- McKenzie, R. D., 1927, “The Concept of Dominance and World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pp.18-42.
- McKinnon R. and Ohno, K., 1997, *Dollar and Ye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Macmillan.
- Rosen, R. and Reagan, M., 1997, “Opening doors : access to the global market for financial sectors,” In Crahan, M. and Vourvolias Bush, A.(eds.), *The City and the World : New Yorks Grobal Futur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NJ: Princeton University.
- Sassen, S., 1995, “On Concentration and Centrality in the Global City,” in Knox, P. and Taylor, P.(eds.),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NY: Cambridge University, pp.63-78.
- Sassen, S., 1997, “Cities, Foreign Policy, and the Global Economy,” in Crahan, M. and Vourvolias-Bush, A.(eds.), *The City and the World : New Yorks Global Futur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p.141-187.
- Sassen, S., 1999, “Global Financial Centers,” *Foreign Affairs* 78, pp.75-87.
- Wood, M., 2004, “Up Close: Stan Gale,” *Real Estate Forum* 59(2), pp.50-52.
- Yan, Y., 2002, “Managed Globalization: State Power and Cultural Transition in China,” in Berger, R. L. and Huntington, S. P.(eds.), *Many Globaliz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p.19-27.

Dreams and Realities of Songdo Free Economic Zone
- With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the State -

June-Woo Ki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newoo@chonnam.ac.kr)*

Abstract : The author made two major arguments in this paper based on a case study on Songdo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First, the state power is still being maintained wh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oject. Planning an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on the hands of government officials. The project reflect the logic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ries to manage globalization through Songdo project. Second, even though globalization did not bring about the decline of the state, it changed the state's approach on spatial issues. Songdo is an articulate expression of pursuit of efficiency over equity with the rise of the globalization wave. Songdo also leaves the Korean state a task for consensus-building concerning liberalization.

Key Words : Songdo, globalization, Korean state, urbanization, free trade zone